

우리는 정보보호기술 패밀리~

컴

퓨터가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큰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대. 인터넷, 바이러스,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. 이와 같은 사이버 시대에서 정보보호기술은 웹상에 워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백신을 제공하는 위협관리시스템(TMS-Threat Management System)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. 사이버 위협관리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로

○ 올 추석 보름달을 보고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... (왼쪽부터)

연봉 1억이 되는 그날까지... 파이팅(강윤식 과장)
나도 내기당구 좀 이기게 해주세요.(김중우 팀장)
돈 많이 벌어서 남편과 함께 국내 여행 떠나고 싶다.(김지숙 대리)
화려한 싱글의 기분, 집 한 채 갖게 해주세요.(제갈연숙 과장)
가자, 가자, 장가 가져(강병완 팀장)
내년이면 서른입니다. 그전에 솔로탈출 할 수 있겠지요.(문홍서 사원)

이를 홍보, 영업하는 전략영업팀은 정보보호기술이 승승장구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.

전략영업팀은 올해 정보통신부,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데이콤, 한국전산원, GS홈쇼핑 등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데 성공했다. 내년에는 조달청, 공기업, 정부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. 이처럼 전략영업팀이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에는 팀원들 사이의 끈끈한 가족애가 원동력이 되었다.

“가족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인지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죠. 언제라도 가족 애경사가 있으면 당장 달려가야죠.”

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가족임을 자처한다. 전략영업팀 김중우 팀장은 팀워크가 팀의 생명이라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.

“팀원들 중 누구 한명이라도 업무가 남아있으면 업무를 나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도와줍니다. 팀워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이 일찍 끝나면 다 같이 모임을 가질 수도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죠. 하하.”

우연히도 팀원 대부분이 회사 근처에 살고 있어 퇴근 후 함께 모이는 일이 많다. 집에 있다가도 술 한잔 생각하거나 심심할 때 전화를 하면 언제든 흔쾌히 모여 당구도 치고 인터넷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함께 푼다. 이제 전략영업팀원들은 동네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.

따뜻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팀원들이 있어 출근이 즐겁다는 전략영업팀의 올해 목표는 매출 100억원 돌파다. 그리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팀이 받게 될 인센티브 중 일부를 회사에 내놓아 사업계획발표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. 이는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버 위협관리시스템(TMS)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. 또 다른 목표는 현재의 여세를 몰아 내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다.

더 넓은 사이버 시장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정보보호기술 전략영업팀의 날개짓은 패밀리 정신이 있기에 더 힘차게 느껴진다.

